

04

/ COVER STORY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이란?

19

/ 소개합니다

[한림법학원]을 소개합니다. 한림법학원은 국가 고등고
시 합격생을 배출하는 교육학원...

24

/ 애! 그렇구나 (1)

드론(Drone)에 대해서 알아보시다.
드론에 대한 관심은 관련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확산되는 양상...



Will Story

(2015
June
No. 65)

www.willbes.com

직장생활에서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세 가지다.

첫째, 다른 사람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일을 해라.

둘째, 사람들이 당신과 어울리고 싶어 할 정도로
긍정적인 기운을 내뿜어라.

셋째, 호기심을 갖고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라.

- 잭웰치 GE 전 회장



Cover 커버스토리 Story

04 COVER STORY
[섬유사업 1부] 임민수 상무

—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이란?

—
섬유사업 1부
임민수 상무

What's different now? What has changed?

구글의 공동 창시자며 CEO였던 Eric Schmidt 회장이 좋아하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User의 Trend를 빨리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하는 IT 업종의 급격한 변화에 발 빠른 대응을 위해 자주 던지는 질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력 사업인 의류에서도 Buyer들의 전략은 매년 변화하고 있고, Supplier인 우리가 쫓아가기 힘들 정도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Sourcing office도 아시아의 주요 국가별로 분산 배치되어 Sourcing을 해왔지만, 이제는 고비용 구조의 한국 office를 청산하고 홍콩이나 생산기지가 있는 지역으로 Office 이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이미 Regional office로 전환이 된 상태고, Gap Korea office도 카테고리별로 홍콩, 인디아 그리고 주력 생산기지인 베트남으로 이전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 Target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력 Buyer인 Target의 경우 예전에는 Trend에 맞춰서 Buyer 사이드에서 결정된 Artwork이나 Design을 Supplier가 받아서 Develop하고 생산 및 출하만 하면 되



었지만, 지금은 이 기능까지도 Supplier쪽으로 넘기기 위한 작업을 Qualified된 회사와 Test 중에 있습니다. 즉, Supplier가 제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Concept 및 Trend 분석에서부터 생산 및 최종 완제품 선적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을 책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조만으로는 안되고 모든 기능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고 우리의 Customer가 바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강화된 Buyer들의 Sourcing 전략은 원가 및 비용절감을 위해서 Duty Free 국가를 통한 공급 물량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고, 우리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의 Duty Free 혜택을 취할 수 있는 지역에 생산설비를 갖고 있는 Supplier들과의 비즈니스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고객의 변화에 조속한 대응을 하고 주어진 환경과 한정된 자원으로 경영성과를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략이란 매우 중요합니다.

금년은 사장님의 취임사에도 말씀하셨듯이 그 동안 정체되어 있던 매출부분도 안정적인 손익구조를 토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단순하게 인적자원의 가동율을 고려한 수주나 방향성 없는 매출 증대는 지양하고, 우리가 진출한 다양한 국가들의 benefit을 고려하여 각 국가 및 생산기지별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develop하고 수주하며 더 나아가서는 중미와 아시아 생산기지의 연계를 통한 매출 증대

에 힘쓰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중미의 성공적인 영업 현지화를 거울삼아 아시아 지역에서도 Buying Office 진출 지역에 영업의 현지화 체계를 수립하여 고비용 구조의 운영방식에서 현지화를 통한 저비용, 고효율 체계로 전환해야 하고, 한층 강화된 전략수립을 통해 공급과잉으로 출혈경쟁이 심화된 섬유사업을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사업 또한 훌륭한 강사진의 보유가 중요한 만큼 이들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훌륭한 강사진을 영입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보다 앞선 경쟁사의 운영전략을 그대로 도입해서 따라갈 때도 있지만, 그러한 접근방식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영원히 따라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상대는 경쟁사가 아니라 우리의 주요 고객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한정된 자원과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개인의 훌륭한 업무지식과 경험 그리고 생산현장의 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5년의 절반이 지나가는 지금 우리가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변했는지를 되짚어보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갈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 조성될 때, 우리는 경쟁력 있는 미래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NEXT
COVER STORY

다음달 COVER STORY 원고는
김종석 부장님께서 주실 예정입니다.

Willbes

월비스뉴스

News



07 소개_ 한림법학원

18 월비스 소식

한림법학원

우리는 월비스라는 이름 아래 각 임직원이 퍼즐과 같이 흠뻑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부문이 상이하고 사업장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 혹은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혹은 어떤 분들이 일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러한 연유로 월비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호에는 한림법학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Q **우리회사는 사업부문이 다르고 사업장이 산재되어 있어 서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직원들을 위해 “우리 한림법학원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안녕하세요? 이번에 월비스 한림법학원 소개를 맡게 된 김지훈 실장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회사가 여러 사업부문으로 나뉘어 있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실상 직원들끼리 얼굴 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요. 이런 자리를 빌려서 지면으로나마 한림법학원을 소개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두서 없는 글이지만 한림법학원 9명의 구성원들이 만들어가는 교육학원의 참모습을 조금이라도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한림법학원은 국가 고등고시 합격생을 배출하는

교육학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고등고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해를 돕고자 과거 사용하는 용어로 표현한 것이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법학원에서 진행하는 주요 교육과정은 변호사시험 대비과정, 사법시험 대비과정, 5급공채시험 대비과정, 국립외교원 대비과정 등입니다. 즉, 우리나라 변호사(판사, 검사 포함), 국가직 5급 사무관, 외교관 선발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강의 및 교재 포함한 각종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학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자랑과 허풍을 섞어서 말씀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나 5급 사무관, 외교관이 되신 분들 중에 한림법학원 강의나 교재를 보지 않으신 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한림법학원에서 일하는
월비스 가족 소개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 개성 있는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림법학원은 현재 9명의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송주호 상무님**은 한림법학원 원장을 겸하고 계신, 명실상부 한림법학원의 수장이십니다. 하지만 교육사업부 전체를 총괄하시는 입장이신지라 한림법학원만을 챙겨주지는 못하시지만 마음만은 늘 저희와 같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상무님.....그렇죠..... 저희는 다~~알아요~~ ^_^

송주호 상무

H a n l i m L a w A c a d e m y

한림법학원은 총 4개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팀별로 직원을 소개하는 것이 그분의 역할에 대한 소개를 겸할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데스크팀**을 소개하면,
15년 경력의 베테랑 중의 베테랑 이은주 차장님 지휘 아래
김민지 대리, 조혜인 사원이 한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은주 차장님은 데스크 접수 업무뿐만 아니라 강사료 산정의 기초데이터를
기획관리팀에 넘겨주는 업무까지 담당하시는 분이다 보니 콧대 높으신 스타강
사들도 이분 앞에선 께깁~~합니다.

그리고 신림동 대표미인인 **김민지 대리님**은 자타공인 신림동 최고스타입니다.
접수하러 온 수강생들이 접수하러 와서는 가질 않습니다. 괜히 이것저것 더 물
어보고……(공부 안하니???)

하지만 얼굴도 예쁜데 친절하기는 또 어찌나 친절한지…… 김민지 대리님
때문에 다른 학원 강의는 도저히 못 듣겠다는 수강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

데스크팀 또 한 명의 간판인 **조혜인 사원**은 입사한지 석 달 만에 빠르게 김민  
지 대리님을 위협(?)하는 인기직원으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특유의 밝은 성격  
과 환한 미소로 접수하러 오는 수강생들에게 긍정의 이미지를 팍팍~~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최강 데스크팀 소개를 마치고, 실무 담당자들을 소개하겠  
습니다.



이은주 차장



김민지 대리



조혜인 사원

### 5급공채 및 국립외교원팀은

최인종 차장님과 송중호 과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팀 제목처럼 5급공채시험과 국립외교원, PSAT(공직적격성검사) 대비 과정에서 진행되는 강의프로그램의 기획, 강의지원, 종합반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특유의 전라도 사투리를 표준말과 교묘히 매치시켜 독특한 언어를 창조하신 **최인종 차장님**은 5급공채와 국립외교원 준비생들의 큰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 시는데 풍기는 이미지와 달리 독특한 방식으로 식도락을 즐기는 미식가이면서, 피규어 수집 등의 취미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섬세하고 꼼꼼하신 분입니다.

**송중호 과장님** 역시 다소 무뎡뎡해 보이지만 특유의 친화력으로 종합반생이나 수강생들 사이에서 형님 같은 존재로 아주 인기가 높은 분인데요, 오토바이 레이싱을 즐길 만큼 와일드한 취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컴퓨터공학과 못지않은 컴퓨터 만지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사법시험을 준비한 법 학도 출신이면서 상당한 수익률을 자랑하는 주식고수이기도 한……좀……복 잡한 분인데……죄송합니다~ ^\_^  
저도 송중호 과장에 대해 잘 알고 싶습니다!!!



최인종 차장



송중호 과장



정여림 과장

**사법시험팀의 정여림 과장**은 신림동 전체 홍일점 여성 기획자입니다. 담당하고 있는 사법시험팀이 2017년 폐지를 앞두고 있긴 하지만, 마지막까지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종합반생 모집이나 학생관리에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즘 수험생 성비가 남성과 여성이 거의 비슷할 정도로 여학생들이 많은데 큰언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지요~



김지훈 실장

마지막 **변호사시험팀**은 이 서면인터뷰를 작성하는 저와 이덕희 과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덕희 과장**은 처음 만나시는 분들은 움찔할 정도로 강한 인상(?)의 소유자인데, 첫마디를 딱 듣는 순간 감미로운(?) 목소리에 참 선한 사람이구나 하고 느낄 정도로 좋은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등 기계 만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얼리어답터이면서... 출신은 법대를 졸업한 법학도이고요. 그런데 미술 쪽이나 그래픽 디자인쪽에도 감각이 있어서 학원에서 진행되는 신문광고 등에서 특별한 재능을 발휘하기도 하는 멋진 직원입니다.

아무튼 최인종 차장, 이덕희 과장, 송종호 과장 이 세 명은 풍기는 이미지는 조폭 느낌이지만 하나 같이들 여성스럽고 섬세한 성격의 소유자들입니다. 다들 키도 커서 가끔 저 세명과 채권 회수 같은 업무를 해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장담컨대 저 세 명은 야쿠자 돈도 충분히 받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 팀원 소개를 마무리하자면,

신림동 대표미녀들로 구성된 최강 데스크팀과 전국 유일의 홍일점 미녀기획자, 그리고 이들 미녀집단을 보호(?)하는 야수의 탈을 쓴 순한 양과 같은 4명의 실무기획자들이 대한민국 최고난이도의 5급 공무원 선발시험과 변호사 선발시험 합격자를 배출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고등고시 전문학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Q **우리회사 한림법학원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한림법학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 한림법학원은 국가시험중 5급공채(5급 사무관, 국립외교원(외교관 선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강의컨텐츠를 제공하여 최단기간 내 합격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수험전문학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소위 고등고시 전문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컨텐츠 생산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아무래도 입시학원이나 공인중개사 같은 자격증 학원들은 그 종류도 많고 업종에 종사자들도 많아서 어렵지 않게 관련 컨텐츠를 접하게 되는데, 고등고시의 경우 법학과목을 중심으로 훨씬 다양한 과목들과 공직적격성 검사(PSAT) 등 용어부터 생소한 시험과목들 때문에 관련 학원의 수도 많지 않아 일상에서 이에 대한 정보를 직간접으로나마 접하게 되는 기회가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난이도 면에서도 최고정점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그 교육방식에 대해서는 더욱더 생소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를 돕고자 한림법학원에서 생산되는 강의컨텐츠 제작방식을 간단하게나마 소개해드리는 것이 우리팀 업무를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강의컨텐츠는 실강의와 교보재로 나눌 수 있는데, 실강의의 대부분이 녹화 및 인코딩 과정을 거쳐 온라인 강의로 재서비스되기 때문에 온라인컨텐츠는 실강의 범주에서 같이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온라인사업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강의컨텐츠도 많이 있는데 이는 교육사업부 W.C.A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이고 한림법학원내에서 온라인과정만을 별도로 생산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해의 편의상 실강의 컨텐츠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히 학원강사가 중심이 되어 시험과목별로 단계별 학습법에 따라 학원강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등고시의 경우 법과 과목 특유의 독특한 학습방법론이 존재하고 있고, 또한 5급 공채 등 각 시험영역별로 출제형태가 다



양(객관식, 논술식, 면접시험)하기 때문에 강의진행 및 지도방법에 있어서 그 기본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영역인 것입니다. 따라서 학원의 강의기획능력이 그 어느 교육영역보다 큰 곳이기 때문에 그 콘텐츠 제작방식을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의콘텐츠 제작방식은 여타 제조물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제작단계를 간단하게나마 소개한다면,

모든 강의는 “실제시험 출제경향분석 - 시장(수요) 조사 - 강의방향 설정 - 교재제작 - 강의 홍보 - 수강생 모집”의 단계를 거쳐 생산되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실제 시험의 기출경향 분석을 통해 최대한 다양한 형태의 학습지도방법을 상정하게 되는데, 실제 진행할 때는 기존의 학습법에서 변화가 없더라도 이런 학습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비단계의 기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매년 기출경향을 분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인데, 실제로 시장의 니즈가 포착이 되면 향후 기획단계가 진행될 때 기획자가 기획의 전 과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다분히 추상적이더라도 출제경향에 기초한 다양한 학습법을 메모하고 정리하는 과정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험생들 사이에서 어떤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어떤 교재가 있다면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식으로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기획자들은

이런 수험생들의 니즈가 포착이 되면 좀더 구체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해서 왜 이런 요구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런 요구가 소수가 아닌 다수의 의견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의 수요가 확인이 되면 출제경향에 부합하도록 수험생 수준별로 나누어 단계별 강의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됩니다. 이때 기획된 프로그램이 실제 강의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강의프로그램 확정절차를 밟게 되는데, 강의프로그램 확정은 보통 수험생 선호도 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선호도 조사는 수험생 대상 설문조사 및 예비강의 형태의 기획특강 등을 개설해서 수강생 반응을 조심스럽게 살펴서 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강의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게 되면 각 과목별 강사진과 개별미팅 및 단체미팅을 진행합니다. 이때 갖가지 내용으로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프로그램 진행방식에 대한 설득작업 등을 통해서 강의진행방식의 틀을 서서히 확립해 나가게 됩니다. 이 작업은 실제로도 대단히 중요한 단계인데, 예전 모강사의 실례를 들어보면 실무자가 기획한 강의프로그램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바람에 수험생들의 거센 항의를 받아 수험가에서 도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강사의 경우 실무담당자 및 다른 과목 강사들과 진행하는 기획회의에서 해당 강의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도 제대로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실제 강의를 진행할 때도 독단적으로 자기만의 강의진행방식을 고집한 이유로 수험가 퇴출이라는 결과까지 초래한 사례였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해당 강사뿐만 아니라 학원 이미 지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 더욱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에서 아무리 훌륭한 강의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들어도 실제 강의를 진행하는 주체는 강사이기 때문에 해당 강사가 강의프로그램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의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의교재가 훌륭해야 하는데, 훌륭한 강의교재의 정의를 ‘강의와의 높은 상호보완성’이라고 말한다면 강사가 강의프로그램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강의완성도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이고, 이는 곧 시장에서 그 프로그램의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이렇게 해서 강의진행방식 및 강의교재 등의 준비작업이 완료되면 동시에 담당 실무자는 홍보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모든 실무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홍보기획은 늘 어려운 작업입니다. 저 역시 15년 넘게 강의기획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홍보회의 시기가 되면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앞서 강의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여가 소요되는 작업인데 이렇게 어렵게 완성된 강의프로그램이 부실한 홍보로 시장에서 사장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실무자들이 홍보작업에 공을 들이고 심혈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지요. 다만 이 자리를 빌

려서 학원 기획자들이 홍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긴장을 늦추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홍보는 늘 물량투입을 수반하게 되는데 타학원과의 경쟁이 가속화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강의의 질 보다 홍보의 양 만을 강조하게 되어서 홍보비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때부터는 단기전략만이 난무하게 되고 수강생 숫자가 타학원보다 1명이라도 적으면 홍보가 부족하다는 분석만이 설득력을 얻게 되어 강의의 질적 개선 따위는 논할 여지조차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강의기획 보다는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결과만 초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강의프로그램의 체질개선을 통해 부족한 시장점유율 회복을 꾀하는 장기적인 전략은 아예 시도조차 못하고 과도한 홍보비용 지출로 인해 경영상 부담만 가중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강의홍보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너무나 길어질 수 있기에 교육사업부 실무자들의 홍보업무에 대한 고충과 홍보업무를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마음가짐 정도만 당부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무리 홍보가 뛰어나더라도 원래 강의프로그램의 퀄리티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냉혹한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한림법학원이 담당하는 고등고시는 수험생 수준이 국내의 어떤 시험 보다 높기 때문에 강의 퀄리티가 높지 않으면 곧바로 시장의 냉혹한 평가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 강의제작단계에 대해서 다소 지루하게 말씀 드렸는데요, 서두에 언급했듯이 고등고시 교육시장이 다소간의 전문성도 띄고 있는 영역이라 우리회사의 다른 팀 직원 분들께 저희들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조금이라도 이해시켜 드리는 것이 한림법학원을 소개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한림법학원의 역량을 자랑해야 할 순서인데 지면상의 제약으로 최대한 간략하게 우리팀이 제일 잘하는 것 딱 하나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림법학원은 독특한 장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연간종합반’ 입니다. 즉 5급공채,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 영역별 연간종합반 등록숫자에서 지난 7년간 대한민국(?)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수강생 많이 모으는 것이 왜 장점이 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어느 수험시장이든 스타강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 한림법학원이 속한 고등고시 시장도 마찬가지인리라 단과강의에서 스타강사의 위력과 역할은 당연히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학원에 더 인기 있는 스타강사가 있거나 혹은 비슷한 인지도의 강사진이 동시에 같은 강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학기초반에 모집하는 연간종합반 수에서 우리 한림법학원은 늘 타 학원을 월등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학원에서는 매년 수강료 대폭할인, 퍼주기식 선물공세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한림법학원에 대응하는데도 언제나 종합반 등록 인원은 우리팀이 1위를 고수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팀의 종합반 모집능력은 타 학원뿐만 아니라 우리학원 강사진 사이에서도 늘 이슈로 회자되는데요.

우리팀이 종합반 모집할 때 다른 학원과 차별화할 만한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등록금은 오히려 타 학원 보다 비싼데도 불구하고 높은 등록율을 자랑하는 것이 타 학원이나 강사들한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종의 ‘사건’ 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팀이 종합반 모집할 때 엄청난 공수를 부리거나 독특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팀의 실무자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경험과 강의기획력이 설명회나 상담할 때 자신감으로 비쳐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강의프로그램 기획과정 전체를 실무자들이 직접 관여하고 통제하는데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진 설득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수강생 모집 시에도 늘 자신감이 넘치고 실무자 한 명 한 명이 특유의 카리스마를 발휘해서 수험생들이나 부모들이 타 학원에 비해 훨씬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림법학원의 역량을 딱 하나만 말씀 드린다고 했는데, 자동차회사의 목적이 차를 많이 판매하는 것이듯 우리팀의 존재목적도 결론적으로 수강생

을 많이 모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종합반을 잘 모으고 새로운 강의로 단과수강생 많이 모으는 것 이상의 어떤 업무역량이 더 필요할까 생각합니다. 우리 한림법학원은 지금까지 우리만의 기획방식과 운영노하우로 나름 최고의 학원을 만들었고, 앞으로도 최고의 학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시험제도가 얼마나 자주 바뀌던지, 새로운 과목이 추가되고 출제경향이 수도 없이 변해서 매년 새로운 강의를 개설하고 시장에 소개하더라도 “변호사시험은 한림이지”, “외교관 되려면 한림 가야지” 이런 얘기들을 더욱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한림법학원에 입사를 희망하는 예비 인재들에게 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A** 아무래도 기획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작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잘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직업보다 본인이 만든 프로그램의 결과물들이 바로 바로 피드백 되기 때문에 성취감을 빨리 느끼기도 하지만 실패했을 때 좌절감도 쉽게 느끼게 됩니다.

또한 강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의외로 많은데 좀 덜렁대는 성격을 가진 분들은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이지만 학원도 서비스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강생을 상대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콧대 높은 강사들을 상대하다 보면 그 스트레스 또한 장난이 아닙니다. 요즘 감정노동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사람에게 받는 스트레스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업무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슷하거나 동일한 업무패턴이 반복되는 여타 직업에 비해 많은 업무변수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강의프로그램이라도 매년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시도 때도 없이 터지는 사고(?)들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만큼 임기응변이 좋은 분이라면 학원기획자로서 더욱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벌써 2015년의 반이 흘러갔습니다. 2015년 그리고 향후에 어떤 목표를 세우셨는지요? 조직의 목표에 대한 설명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2012년도 이래 한림법학원은 시험제도변화 등에 기인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법시험은 2017년도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고, 변호사시험과정은 올해 4회 시험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합격률이 60%대로 높아서 강의수요의 증가가 예상보다 더딘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정치권에서는 사법시험 존치를 공론화하며 또 한번 변화의 태풍을 눈앞에 두고 있고, 5급공채시험

에서는 외무고시가 폐지되고 국립외교원이 개원하면서 시험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어 관련 강의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시험대에 오르고 있고요.

결국 시험제도가 자주 바뀌게 되면 제도 자체의 불안감 때문에 시험에 도전하려는 예비수험생 수요가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영역처럼 성장하는 시장에서는 다양한 강의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수험생 수요를 늘여가는 작업을 해야만 하고, 제도개편으로 수요가 축소된 5급 공채나 사법시험 같은 영역에서는 매출감소를 점유율 증가를 통해 메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어려움으로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2015년도 목표를 물어보셨는데, 한림법학원의 올해 목표는 이러한 시장의 변화 속에서도 탄탄한 강의프로그램 기반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올해 변호사시험 영역과 국립외교원에서 새롭게 시도된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담당 실무자들이 근 3년 가까이 고생을 하였습니다. 부디 수험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우리팀의 프로그램이 일개 학원의 사설강의가 아니라 당연히 변호사시험 훈련과정으로 평가 받고 대접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즉 변호사 등 법학실무가 양성교육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담당하지만 변호사시험 훈련과정만큼은 한림법학원을 통하지 않고는 안되게끔 우리 프로그램이 잘 자리잡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소망해봅니다.

한림법학원 실무자들은 매년 기획회의를 시작할 때마다 늘 되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다’ 라는 말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정규교육과정에 비해 사설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적으로 사교육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규교육과정이 순수학문 연구를 포함한 좀 더 광범위한 목적을 담고 있겠지만, 사설학원 역시 시험합격이라는 그 나름의 분명한 존재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설학원이라도 시험준비과정이라는 순수목적에 오로지 부합하는 모습으로 세상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한다면 그 나름대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결국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우리 한림법학원에 수강 등록한 순간 변호사나 외교관이 된 것 같은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수험전문기관이 되는 것이 우리가 그리고 있는 학원의 최종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학원은 우리가 아니면 만들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 예방

2015년도 5월 20일 임찬혁 사장이 도미니카 대통령을 예방하고 대통령, 상공부장관 등과 함께 도미니카법인 운영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좌측부터 임찬혁 사장,  
Danilo Medina 대통령,  
이광호 센터장(G.S.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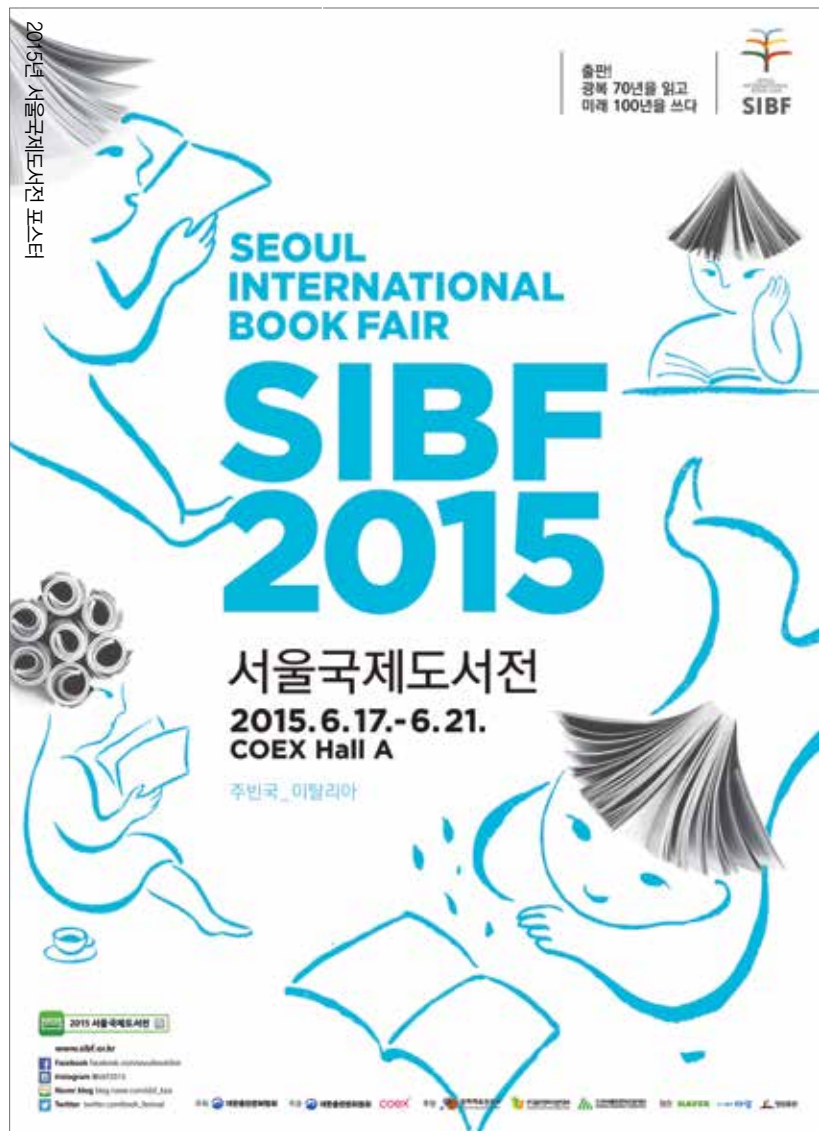


좌측부터 임찬혁 사장,  
JoseCastillo 상공부장관



좌측부터 임찬혁 사장,  
Luisa Fernandez CNZFE청장,  
Jose Castillo 상공부장관,  
Alexandra Izquierdo Proindustria청장,  
이광호 센터장(G.S.C)





# 월비스,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만나요

월비스, 2015년 서울국제도서전 참가 코엑스에서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개최

지난해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여한 바 있는 월비스는 올해도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여, 다양한 월비스의 도서를 선보이게 된다. 월비스 교육사업부는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5급공채, 법률실무, 7급공무원, 9급공무원, 취업,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고시 및 자격시험 관련 도서를 매년 300여종 출간하고 있다.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SIBF  
2015

‘2015 서울국제도서전’이 ‘출판! 광복 70년을 읽고 미래 100년을 쓰다’라는 주제로 오는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총 30개국의 국내외 출판사가 참여해 아동도서를 비롯한 인문사회, 과학, 문학, 예술, 철학 등 각 분야의 다양한 도서가 소개되고, 특별전시 및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법률수험서, 법률실무, 취업, 공무원 등 성인교육시장의 대표주자인 월비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여하게 된다.

서울국제도서전을 준비중인 교육사업부 M&C팀 손택엽 과장은 “서울국제도서전 참가는 월비스 교재를 비롯해 월비스의 다양한 수험컨텐츠를 홍보 및 판매하는 행사”라면서 “고시 및 취업도서를 비롯해 공무원교재 등 다양한 월비스 교재를 현장에서 구매가능하며, 동영상 강좌 및 학원강좌를 상담할 수 있게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국제도서전 내 월비스 부스(booth)는 입구를 기준으로 중간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출간도서 할인판매를 비롯해 월비스의 다양한 컨텐츠를 홍보하게 된다.

이를 위해 수험강좌의 컨텐츠와 멀티미디어를 담당하고 있는 M&C팀 뿐만 아니라 월비스사이버아카데미와 월비스한림법학원, 월비스고시학원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다양한 홍보전 및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국제도서전’은 매년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국내 유일의 도서전으로, 1954년 ‘서울도서전’이라는 타이틀로 시작해 지난 1995년 ‘서울국제도서전’으로 개명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3년 서울국제도서전은 세계 25개국의 610개 출판사가 참가해 부스를 운영했으며, 전 시기간인 5일 동안의 국내외 방문객 수는 약 13만명이었다.

월비스 가족들도 무더운 여름 야외에 나가는 것도 좋지만, 가족들간 도서박람회로 세상을 경험해보고 다양한 추억을 만드는 것은 어떨지 제안해 본다.

# FUN

휴식 · 힐링 · 칭찬마라톤



22 Break time#

24 칭찬 마라톤

26 축하합니다

28 아! 그렇구나(1)\_ 드론(Drone)에 대해서 알아보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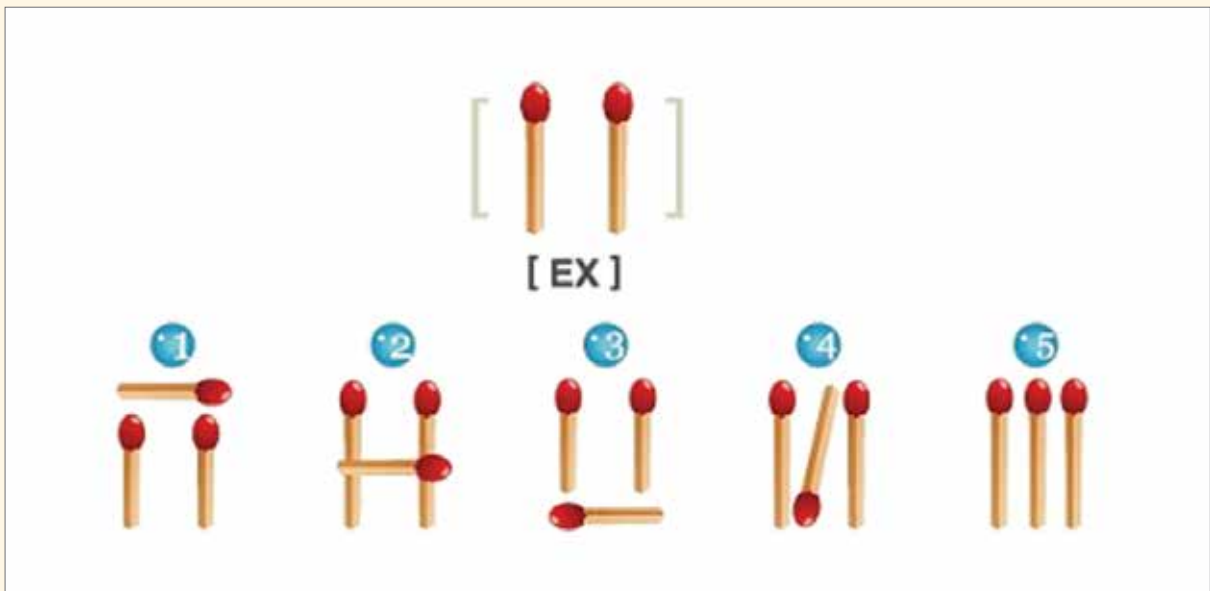
33 아! 그렇구나(2)\_ 호국보훈의 달, 6월

36 아! 그렇구나(3)\_ 시사고전

Break time #

# 재미로 보는 심리테스트

그림과 같이 2개의 성냥개비가 놓여 있을 때,  
1개의 성냥개비를 추가하라고 한다면  
어디에 놓고 싶으세요?



다음페이지에서 결과확인 >>>

## 1 위쪽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고 행동하는 스타일로 자신이 생각한대로 밀고 나가는 적극적인 성격

---

## 2 가운데를 가로 질러 놓는다.

2개의 성향개비와 연결하듯이 올려 놓은 사람은 개방적이고, 사교적인 사람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어 놓고 스스로없이 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절친하게 지내거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지위나 명예, 학력, 직업, 외모 등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사귀려 하기 때문에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으며, 이성 관계에 있어서도 개방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이성들과 친구나 애인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 3 아래쪽에 놓는다.

성향개비를 아래쪽에 놓는 사람은 소극적이고 신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드러내어 주장하기보다는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경청하고, 타인의 말이나 행동을 수용 또는 추종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예속되거나 희생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매사에 쉽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행동성과 적극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치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 4 세로로 비스듬히 세워 놓는다.

성향개비를 세로로 비스듬히 세워 놓은 사람은 대인관계를 중시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행동하거나, 무리를 하지 않는 안정지향형 인간입니다. 당신은 사람을 사귀거나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매사를 조용하고 차분하게 처리하고 누구에게나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존경을 받거나, 모범적인 인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성에 대해서는 좋고 싫은 것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어서 첫 인상이 싫은 이성과는 상대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

## 5 세로로 나란히 세워 놓는다.

2개의 성향개비를 바깥쪽에 나란히 세워 놓은 사람은 자주성과 독립성이 매우 강해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회성과 사교성, 협조성 등이 부족해 사람들과 융화되지 못하고 고립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마음을 전합니다

# 당신이 최고입니다!

‘칭찬받기 힘든 세상, 칭찬하기 힘든 세상’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인색해 하지 말고 시원하게 월비스 임직원들끼리 칭찬을 주고 받아봐요.

칭찬 마라톤은 칭찬 받은 사람이 다른 임직원을 칭찬하는 릴레이 방식입니다.

다만 칭찬 받으신 분은 칭찬할 분을 선택한 후 원고를 마감일인 매달 3째주 금요일 전까지는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칭찬 마라톤 원고 제공자에게는 소정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됩니다.

※ 단, 오글거림과 낮이 뜨거워지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



▶ 칭찬을 해주신  
사업지원부 지원2팀  
박종현 대리님(Harvey)

안녕하세요, 사업지원부 지원2팀 박종현 대리입니다.

지난달 하회준 대리님에게 민망하지만 기분 좋은 칭찬선물을 받았습니니다. 우선 생각지도 못한 과분한 칭찬선물 보내주신 하회준 대리님에게 감사인사 전합니다. ^^

예전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인기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잘한 일에 관심을 가져주고 칭찬과 격려를 보내면 올바른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내용인데요. 물론 저도 최근 몇 주간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 \_ ^

월비스 모든 임직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열심이시고, 최선을 다 하기에 어느 분을 칭찬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음 칭찬릴레이의 바통을 누구에게 넘겨줘야 할지, 어떤 말을 써야 할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을 거듭한 결과, 이번 칭찬 주인공은 교육사업부 WCA의 이명원 차장님입니다~!

칭찬을 받으신  
**교육사업부 W.C.A**  
**이명원 차장님**

이명원 차장님과는 업무적으로는 연결되는 부분이 없습니  
 다만, 사내 자전거 동호회인 월비스에 참가하면서 처음으  
 로 안면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월비스 모임에 참가하는 모  
 든 직원들을 칭찬하고 싶었지만, 칭찬릴레이의 성격상 굳  
 이 한 사람을 꼽아야 했기에 차장님을 선택했습니다. 월비  
 스 최고! 😊

작년에 처음으로 월비스에 참가했었는데, 어색하지 않게  
 말도 붙여주시며 먼저 분위기를 풀어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본 게 처음이라 무척 힘들었는데, 중간  
 중간 한번씩 쉴 때마다 차장님의 농담에 기운을 얻어서 완  
 주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월비스에서 차장님을 봤던 건  
 지난 1년간 4~5회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볼 때마다  
 기분 좋은 웃음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을 편안  
 하게 해주고 미소 짓게 만드는 이명원 차장님, 칭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한 일에 대한 칭찬엔 인색하고, 실수 또  
 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탈옥한 죄수를 찾기 위해 서치  
 라이트 100개를 켜 놓은 것처럼 집중포화를 퍼붓곤 하죠.  
 모두들 짜증보다는 미소를, 꾸중보다는 격려를 할 수 있는  
 월비스 임직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 결혼을 축하합니다

교육사업부

W.A 홍민교 과장 & W.A 강효두 대리

월비스의 겹경사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_^  
홍민교 과장님과 강효두 대리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 일시

2015년 6월 13일(토)  
오후 1시 30분

## 장소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54  
(신림동 1484-1) 런던웨딩프라자



# 입사를 축하합니다.

월비스 새식구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섬유사업2부 8팀  
박소희 사원

안녕하세요

이번에 월비스에 입사하게 된 박소희 사원입니다.

나이는 24세, 사는 곳은 도봉구 창동입니다.

조선/해양분야의 회사에서 영업지원 및

팀서무로 2년동안 근무하고

이번에 영업지원 경력직으로

월비스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생각팀  
민다혜 대리

안녕하세요.

2015년 5월 18일부터 새로 근무하게 된 자연생각팀 민다혜 대리입니다.

직접 찾아 뵙지 못하고 죄송스럽게도

사보를 통해 먼저 인사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주어진 임무에 있어서 열정적인 태도와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점점 성장해 나가는

자연생각팀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섬유사업부 TD팀  
김지현 차장

안녕하세요?

TD팀에 입사한 김지현입니다.

아직 자세히 인사가 못 나누었고,

낯설기도 하지만 앞으로 만나 뵈면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이전트를 거쳐 거의 10년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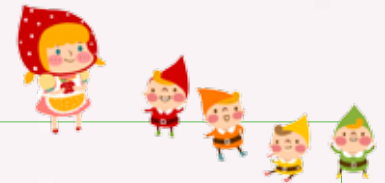
다시 벤더로 돌아왔는데,

다시 벤더에 잘 적응하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돌잔치에 초대합니다.



## 사업지원부 지원1팀 임윤서 대리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임윤서대리 공주님 유슬이가 어느새 첫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오셔서 많이 축하해주세요 ^^

일시 : 06. 06. (토) 11:30 ~ 14:00

장소 : 천안 불당동 682 발할라 파티하우스 1층 아플론 룸



아! 그렇구나 (1)

# 드론(Drone)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지난 호에서는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IT 기기와 네트워크의 발달에 따른 新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번 호에는 사물인터넷, 디지털노마드에 이어서  
드론(Drone)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비스 임직원분들 중에서는 조그만 드론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테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드론을 만나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론(Drone)은 비행기나 헬리콥터와 유사한 형태로 제작된 소형 무인 비행체를 지칭합니다. 최근 드론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경찰의  
도난 차량 추적이나 마약 수사, 재난 지역의 실종자 수색, 미디어 업계의 항공 촬영 등 활용 범위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2015년 5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민간용(civilian) 드론 시장 규모가 2023년 2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개인 소비자의 드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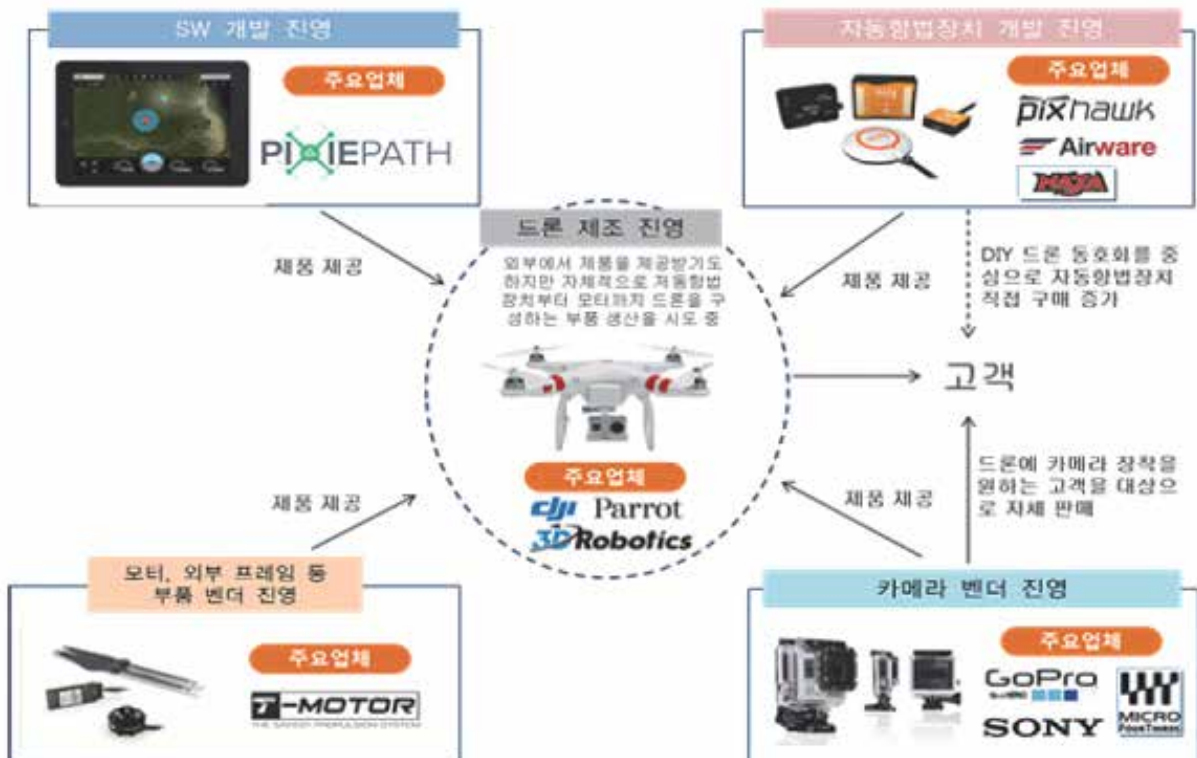
### 드론에 대한 관심은 관련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확산되는 양상

지난 1월 개최된 세계 최대 소비가전박람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15에서는 행사 최초로 드론 제품 전시 구역인 '무인 시스템 마켓플레이스(Unmanned Systems Marketplace)'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e-커머스 서비스 이베이(eBay)에서 판매된 드론은 12만 7,000대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660만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특히 이베이에서 판매되는 리모콘 조종 완구 중 드론

의 판매 비중이 2014년 2월 30%에서 2015년 1월에는 50%까지 상승하는 등 개인·레저용 드론이 인기를 끌었고, 시장조사업체 BI 인텔리전스(BI Intelligence)에 따르면 2015년 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용(civilian) 드론 시장 규모는 연평균성장률(CAGR) 2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드론에 대한 수요가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산업 생태계 역시 빠르게 그림과 같이 조성되는 양상입니다. 카메라 벤더, 자동항법장치 개발 진영, 드론 부품업체, 드론에 활용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을 관련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STRABASE(2015.4)

## 여기서 잠깐

그림의 중간에 위치한 드론 제조업체인 DJI라는 회사에 대한 설명을 지나치면 안되겠죠? 그 이유는 드론 산업의 중심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 세계 최고 최대의 드론 메이커, DJI

중국 광둥성 선전(深圳)에 DJI라는 드론 메이커가 하나 있다. 이 회사는 지금 전세계 일반 상업용 드론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일반상업용 드론은 일반 동영상, 등산 등 취미활동, 소량물량 배달, 방송촬영 등 일반 상업용 드론을 말한다. 얼마 전 백악관에 떨어진 드론, 일본 수상관저에 날아온 드론도 DJI제품이었다. 지금 전세계 일반상업용 드론 기술표준은 대부분 DJI가 채택하고 있거나 개발한 기술들이다. 드론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업체도 DJI다. 군사용 드론은 미국이 장악하고 있지만, 일반상업용 드론은 미국 독일 일본도 DJI 경쟁자가 되지 못할 정도다.

DJI는 2010년 팬텀이라는 기념비적인 드론을 출시했다. 팬텀은 기술적으로나 기능측면에서나 디자인 측면에서 발군이었다.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이제는 전세계 모든 드론업체들이 기능과 디자인과 조정 소프트웨어 등 모든 면에서 DJI제품을 카피할 정도다. 그래서 DJI는 중국제품은 짝퉁이라는 선입견을 확 날려버렸다. 드론에서는 중국산 DJI드론이 오리지널이고 미국 일본 독일 등 다른 나라 제품이 짝퉁으로 불릴 정도다.

이제 DJI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최대의 드론메이커다. DJI의 성장속도는 놀랄 정도다. 2012년 매출 26백만불, 2013년 130백만불, 2014년 480백만불, 2015년 매출목표는 10억불이다. 영업이익율은 25% 이상이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성장이다.

[출처] DJI 드론이 뜨면서 한국 ICT산업은 본격적으로 침몰하기 시작했다 | 작성자 jwchune

### 이런 수요와 관심에도 불구하고 드론에 가해지는 제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직접 드론에 대한 규제를 주문했는데, 왜 그럴까요?

드론 산업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도 역시 미국입니다. 국가 주도의 군사 기술을 포함해 대형 IT 공룡들이 가세한 미국의 드론 기술은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FAA)은 상업용 드론을 활용할 때 여러가지 규제를 하였습니다.

- 지상에서 125m 이하 높이에서 운행
- 시속 160km 이하 속도로 운행
- 운송가능한 무게 약 25kg 으로 제한
- 시안성이 보장되는 낮에만 운행
- 17세 이상으로 조종 연령 제한
- 항공 조종 시험과 교통 안정국의 심사

과도한 규제에 보이지는 않으나, 드론을 활용하여 택배 시스템을 운용하려 했던 아마존은 직접적인 영업에 대한 제한이 가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과 구글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 테

러 등에 활용 될 가능성이 높은 기술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합니다.

### 규제와 우려 속에서도 빛나는 드론의 매력

현 단계의 상업용 드론은 장난감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술력은 확보되었지만 규제와 가격이라는 측면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미뤄 짐작해보면 머지 않아 드론은 우리의 생활을 완전하게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1) 물류서비스(택배)

드론의 활용은 택배 등의 물류분야에서 주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이 프라이머 에어라는 '30분 이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드론을 사용할 것임을 밝혔고, 2015년 내에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현재 미연방항공청에 드론 운행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지문과 안구 인식 시스템을 탑재한 드론으로 정부문서를 배송하고 있어 세계 최초로 정부 행정 서비스에 무인 항공기 드론을 투입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 2) 정보통신

정보통신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기업은 구글과 페이스북입니다. 구글은 '룬(LOON)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하고 있는데, 동력을 갖춘 기존의 드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층권에 풍선과도 같은 열기구를 띄워 인터넷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오지나 극지에 인터넷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드론 업체 애센타를 인수한 페이스북은 드론과 인공위성, 레이저빔을 활용해 사막과 같은 오지에서도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무인기는 태양광 전지를 탑재해 인터넷이 되지 않는 오지 상공에서 머물며 와이파이 공유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따르면 약 11,000여대의 드론을 띄운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 3) 방송, 영화 등의 특수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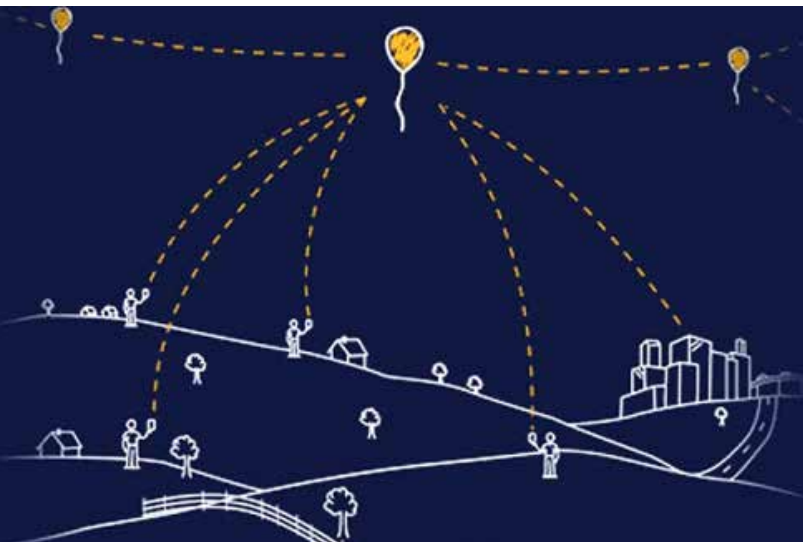
방송에서 '헬리캠'을 동원해 촬영한 영상을 보는 것은 이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최근에 야구 중계를 보다가 야구장 전경을 드론으로 촬영하여 라이브로 보여주는 것도 보았는데요. 방송용 카메라를 드론에 탑재하여 영화, 예능, 스포츠,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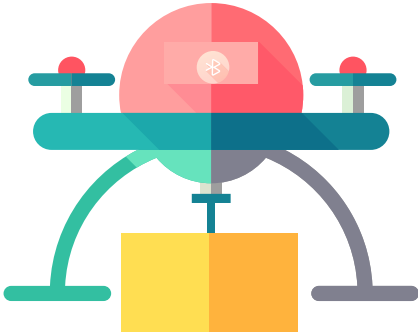
#### 4) 교통상황 관측

프랑스의 르노가 드론을 장착한 콘셉트 카를 인도에서 열린 '뉴델리 오토 엑스포'에 출품해 호평을 얻었습니다. 르노가 '플라잉 컴패니언'이라 이름 붙인 소형 헬기처럼 생긴 드론이 차량의 천장에 숨어 있다가 필요시 나와서 교통 체증 상황을 파악하고 운전 시 주의해야 할 상황을 파악해 운전자에게 전송합니다.

#### 5) 재해 관측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대량의 방사능이 누출됐을 당시 미국의 군사용 무인 항공기 '글로벌호크'가 원전시설에 접근해 적외선 카메라로 발전소 내부를 들여다보고 각 시설의 온도를 포함한 정보를 파악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소방방재청에서도 열과 연기를 자동으로 인식해 산불 발생 지점을 확인하고, 소방대





원들에게 이를 알려줘 초동대처를 할 수 있도록 지능형 CCTV를 장착한 드론을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 6) 범죄자 추적과 치안용

영화 '배트맨'에 등장하는 고딕 시의 원형인 뉴욕 시가 치안용 CCTV를 장착한 드론을 운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카메라가 커버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드론을 띄워 도심 구석구석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분야에 드론을 활용하는 사례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이가 치과를 무서워하자 드론을 활용하여 아이의 유치를 뽑기도 하며,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는 외부에서 감옥으로 드론을 이용해 마약 운송을 시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 그렇다면 드론산업의 미래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규제가 많으면 신생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규제가 많다 해서 반드시 산업이 위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드론산업에 대한 명확한 안전규제 없이 산업의 외형만을 늘려가다가 드론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 보상 등의 문제로 인해 산업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안보와 안전, 개인사생활 침해 등 드론 산업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드론에 관한 법률과 규제를 만드는 것은 산업 성장과 안보 안전 문제라는 저울의 균형을 찾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20년 뒤에 얼마나 많은 드론을 주위에서 보게 될지, 현재와 사뭇 다른 드론 세상을 맞이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



애 그렇구나 (2)

## 호국보훈의 달, 6월

흔히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이라고 불립니다.  
많이 들어봤지만 그 의미를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은 6·6 현충일, 6·25 한국 전쟁, 6·29 제2연평해전이 모두 일어난 6월을 기념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국민의 호국·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국보훈의 달 6월은 '추모의 기간(6월 1일~10일)', '감사의 기간(6월 11일~20일)', '화합과 단결의 기간(6월 21일~30일)' 으로 나누어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6·25 한국 전쟁을 모르는 청소년이 있다고 할 만큼 현재 우리 청소년 및 청년들은 역사인식, 안보의식의 소중함을 잊고 지내고 있습니다. 눈앞의 입시, 취업 등 이 시대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헤쳐 나가야 하는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기 때문 일겁니다.

그러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단재 신채호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가 없으면 현재도, 미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바로 알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호에는 호국보훈의 의미를 생각하며 애국선열을 추모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www.snmb.mil.kr

**1. 서울 국립현충원-서울 동작구 현충로**

국립 현충원은 일제강점기에 의병활동과 독립투쟁을 펼쳤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조국의 광복과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다 전사한 장병들, 국가유공자들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현충문 입구 좌 우측에는 두 마리의 호랑이상이 건립되어 있는데요. 이 호상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고귀

한 생명을 바친 영령들을 호랑이가 지켜줄 것을 기원하는 뜻으로 세워졌습니다.

**2. 전북 임실 호국원-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국립 임실 호국원은 조국수호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들이 영면한 곳입니다. 묘역은 국가유공자 묘역, 6.25 참전묘역, 월남참전군인 묘역과 총령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출처] http://www.isnc.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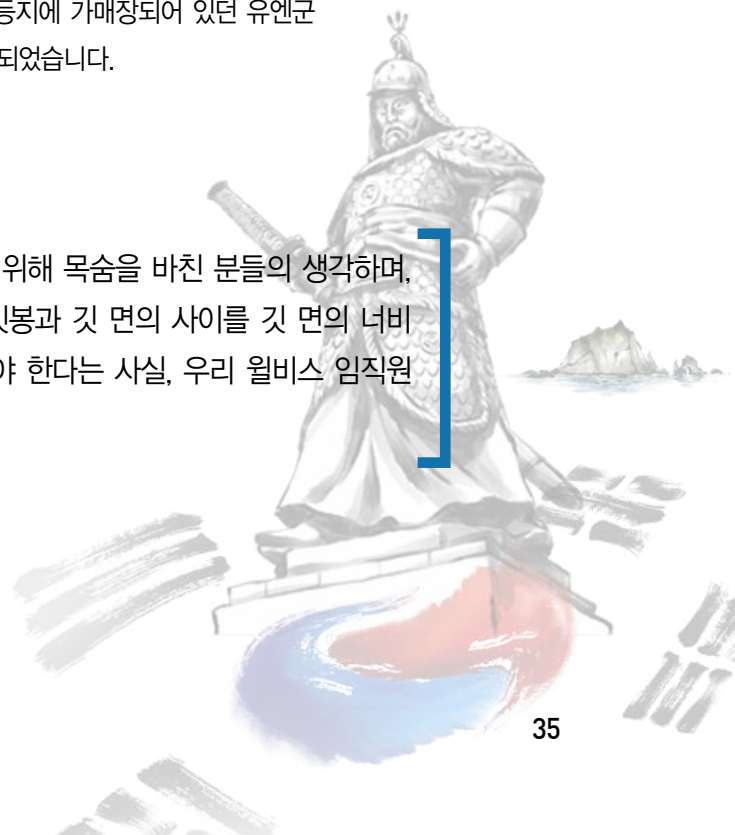
[출처] <http://unmck.or.kr/>

### 3. 유엔기념공원-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유엔기념공원은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로서,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국군장병들과 세계평화와 자유의 대의를 위해 생명을 바친 유엔군 전몰 장병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묘지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이듬해인 1951년 1월, 전사자 매장을 위하여 유엔군 사령부가 조성하였으며, 같은 해 4월 묘지가 완공됨에 따라 개성, 인천, 대전, 대구, 밀양, 마산 등지에 가매장되어 있던 유엔군 전몰장병들, 국군장병들의 유해가 안장되었습니다.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생각하며, 넋을 위로하는 날입니다. 태극기 게양은 깃봉과 깃 면의 사이를 깃 면의 너비만큼 내려 게양하는 조기게양법으로 달아야 한다는 사실, 우리 윌비스 임직원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 1. 화이부동(和而不同)

5월 22일은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날입니다. 1992년 5월 22일, 브라질에서 열린 지구환경정상회의 협약을 기념하여 제정된 날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왜 생물종의 다양성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생물의 종이 많아질수록 생태계가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의 예를 들면, 만일 포도가 한 품종만 있다면, 어떤 강력한 품종 바이러스가 발병하면 포도가 멸종되겠지요. 이렇게 다양한 생물종은 지속가능한 지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유명한 영국의 과학자인 제임스 러브록(James Lovelock)이 지구를 환경과 생물로 구성된 하나의 유기체, 즉 스스로 조절되는 생명체인 가이아 [Gaia theory]로 본 것과 상통합니다.

즉 지구를 생물과 무생물이 서로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생명체로 바라보면서 지구가 생물에 의해 조절되는 하나의 유기체임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다양성은 지구뿐 아니라 조직에서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를 공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고 하실 듯합니다.

#### 화합할 화(和), 말이을 이(而), 아닐 부(不), 같을 동(同)

“화합해 조화를 이루되 같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의 화이부동은 『논어』 「자로」편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화(和)와 동(同)입니다. 화(和)는 조화, 공존, 다양성의 인정이라는 뜻으로 서로간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요, 동(同)은 서로 같게 하다, 함께, 다같이 라는 뜻으로 하나의 가치로 동일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름다운 산과 지구는 작은 나무, 큰 나무, 꽃과 풀, 음식식물, 양지식물이 각기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라면서 서로를 거부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다양한 생각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서로를 성장시켜주며 세상을 지키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화이부동, 다른 사람과 생각을 달리하지만 이들과 화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진다면 그 사회는 각자의 개성을 발휘해 크게 하나 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서로 다른 생명체 모두가 소중함을 알 때 이 아름다운 지구가 지속가능할 것입니다.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날, 화이부동의 지혜를 생각해봅시다.

아! 그렇구나 (3)

# 시사고전

## 2. 약팽소선(若烹小鮮)

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원하는 것이 그욕한 지도자입니다. 바로 약팽소선(若烹小鮮)의 지혜를 가진 지도자입니다.

### 같은 약(若), 삶은 팽(烹), 작을 소(小), 생선 선(鮮)

〈노자〉 제60장에 나오는 약팽소선은 치대국 약팽소선(治大國若烹小鮮)의 준말로써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生鮮)을 삶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정치와 경영이 작은 생선을 삶는 것과 같다니 무슨 말인가요?

중국 상(商)나라(BC1600~BC1042) 건국 초기에 이윤(伊尹)이라는 사람이 요리를 잘하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 부족을 이끌던 탕(湯)왕이 그를 찾아와 “어떻게 요리를 하기에 음식이 그리 맛있는가”라고 묻자 이렇게 답합니다. “음식은 짜서도 아니 되고, 싱거워서도 안 됩니다. 재료가 잘 어울려야 좋은 음식이지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 역시 음식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治國如同做菜). 지나치게 조금해서도 아니 되며, 나태해서도 아니 되고, 알맞은 정도에 이르러야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선요리의 알맞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작은 고기를 굽기 위해 젓가락으로 이쪽저쪽 뒤집다 보면 부서져서 가뜩이나 작은 생선살이 하나도 남지 않는 것이지요. 작은 생선은 때를 기다려 뒤집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정치란 때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생선을 구우려면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칫 한눈을 팔게 되면 바짝 타고, 자주 뒤집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것이지요.

나라를 다스리는 일 역시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윤의 말을 들은 탕왕은 치국(治國)의 도를 깨닫고, 그를 등용한 후 도움을 받아 은나라를 건국했다고 합니다. 약팽소선,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삶듯이 조용하고 천천히 행하는 것이다. 그욕하고 큰 지혜를 가진 지도자의 노련한 치국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출처: KBS1라디오 ‘라디오 시사고전 中’]





# Culture

문화를 즐기자!

# Life



- 39 Travel\_ 추천여행지
- 40 Book\_ 추천도서
- 41 Movie\_ 영화기대작
- 42 Sport\_ 기대되는 스포츠
- 43 English Talk Talk !!

지난 호에 언급했던

활짝 핀 철쭉을 보면서 '듀센 미소' 를 지어 보셨는지요? ^^

어느덧 6월이 되었고, 꽃은 졌지만 주변에는 푸르름이 가득합니다.

기상청에서는 여름 더위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할 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빨리 찾아온 더위 때문인지 몸이 지칠 수도 있는데요.

이번 호에는 다이나믹한 축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coupang.com

## 인천: 헌터스 4K 서바이벌 워터런

1. 행사기간: 2015.6.20
2. 위치: 인천문학경기장
3. 내용: 6월말은 계절적으로 굉장히 더운 계절이 다가오는 시점입니다. 해외에서도 물을 뿌리며 대중들이 모여서 즐기는 축제들이 꽤 많은데요, 헌터스 4K 서바이벌 워터런 축제는 편을 나누어 물총을 가지고 싸우는 재미있는 행사입니다. 참가 자격은 7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바다나 워터파크를 가지 않고도 물을 시원하게 맞을 수 있다고 하네요. 대신에 준비물들이 좀 많겠죠? 그리고 물총싸움이 종료되면 신나는 음악과 함께 물 축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생각만해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_^



이미지 출처: <http://www.danojefestival.or.kr/>

## 2015 강릉단오제

1. 행사기간: 2015.6.16~2015.06.23
2. 위치: 강릉시 남대천 단오장
3. 홈페이지: <http://www.danojefestival.or.kr/>



## 구글의 아침은 자유가 시작된다

라즐로 북 지/이경식 역/유정식 감수 | 알에이치코리아(AHK)

원서 : Work Rules!: Insights from Inside Google That Will Transform How You Live and Le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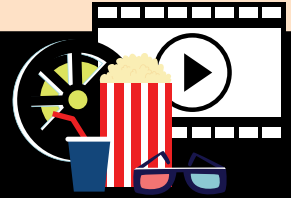
달팽이처럼 느리게, 거르고 또 거르는 채용 시스템. 절대 추측하거나 예단하지 않는 근거 중심 의사 결정. 최고의 인재를 영입하고 최고의 성공을 보장하는 자기복제 문화…… 지금까지 우리가 일하고 살아온 방식을 송두리째 바꿀 구글 내부에 대한 통찰

“무엇이 그들을 일에 미치게 만드는가?”

잠깐 낮잠 자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컬러풀한 빈백 의자가 놓인 사무실. 최고 요리사가 만든 호텔급 유기농 음식을 공짜로 제공하는 식당. 소소한 잡일을 덜어 주는 세탁? 미용? 자동차 오일 교환 서비스. 여기에 업무 시간의 20퍼센트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그렇다고 마냥 자유롭기만 하는 건 아니다. 무한 자유의 이면에는 무한 책임이 따른다. 모든 직원은 철저하게 성과로 평가 받고, 팀에서 반드시 자기 몫을 해야 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점수를 매긴다. 놀라운 복지와 최고의 대우 그리고 탄탄한 경력을 보장하는 세계 최고 직장 '구글'은 자유분방하고 즐겁게 일하지만 살아남아야 하는 치열한 생존 현장이다. 이곳에서 구글 직원들은 놀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일을 통해 즐거움을 얻는다. 구글 직원들은 어떻게 자유롭게 일하면서도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을까?

[구글의 아침은 자유가 시작된다](원제: Work Rules!)는 구글 인사 책임자인 라즐로 북 수석부사장이 인간 중심적인 조직문화와 인재 등용의 비결을 공개한 책이다. 구글이 직원을 어떻게 대우하고 지난 15년간 무엇을 배웠는지 밝히고,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일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실천적인 지침을 곁들여 명쾌한 문제로 풀어낸다. 직원 채용에서 역량 개발 지원, 동기부여까지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사람운영(People Operations) 부문을 총괄하는 저자는, 최신 경영 이론과 심리학, 행동경제학을 접목해 구글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어떻게 인재를 길러내는지 나름대로 해석한 업무 규칙을 내놓는다.



## 쥬라기 월드(Jurassic World, 2015)

|             |              |             |                      |
|-------------|--------------|-------------|----------------------|
| <b>개봉일</b>  | 2015년 6월 11일 | <b>출연</b>   | 크리스 프랫, 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 |
| <b>상영시간</b> | 125분         | <b>관람등급</b> | 12세 관람가              |
| <b>제작국가</b> | 미국           | <b>장르</b>   | 액션, 모험, SF           |

살아있는 모든 것을 압도할 그들이 깨어났다!

'쥬라기 공원' 이 문을 닫은 지 22년, 유전자 조작으로 탄생한 공룡들을 앞세운 '쥬라기 월드' 는 지상 최대의 테마파크로 자리잡는다.

하지만 새롭게 태어난 하이브리드 공룡들은 지능과 공격성을 끝없이 진화시키며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하는데……

돌아온 공룡의 세상! 인류에게 닥친 최악의 위협!



## 극비수사

|             |              |             |               |
|-------------|--------------|-------------|---------------|
| <b>개봉일</b>  | 2015년 6월 18일 | <b>출연</b>   | 김윤석, 유해진, 송영창 |
| <b>상영시간</b> | 128분         | <b>관람등급</b> | 미정            |
| <b>제작국가</b> | 한국           | <b>장르</b>   | 드라마, 범죄       |

1978년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던 사건, 사주로 유괴된 아이를 찾은 형사와 도시의 33일간의 이야기

1978년 부산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

한 아이가 유괴된 후, 수사가 시작되고 아이 부모의 특별 요청으로 담당이 된 공길용 형사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극비 수사를 진행하기로 한다. 한편, 가족들은 유명한 점술집을 돌아다니며 아이의 생사여부를 확인하지만 이미 아이가 죽었다는 절망적인 답만 듣게 되고, 마지막으로 도시 김중산을 찾아간다.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아이의 사주를 풀어보던 김도사는 아직 아이가 살아있고, 보름째 되는 날 범인으로부터 첫 연락이 온다고 확신한다. 보름째 되는 날, 김도사의 말대로 연락이 오고, 범인이 보낸 단서로 아이가 살아있음을 확신한 공형사는 김도사의 말을 믿게 된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수사는 진전되지 않고, 모두가 아이의 생사 보다 범인 찾기에 혈안이 된 상황 속에 공형사와 김도사 두 사람만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데……



## 2015-16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유벤투스 VS FC바르셀로나)

2015년 6월 7일(일) 오전 3시 45분

118년 깊은 역사의 명문 이탈리아 구단 '유벤투스FC' - 더 이상 우울 안 개구리가 아니다.



이미지 출처: www.juventus.com

### 세계 최강 3각 편대 MSN!

**[관전포인트]** FC바르셀로나와 유벤투스는 두팀 모두 이 게임의 승자가 '트레블'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날지라도 빡빡한 일정 속에 3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레블을 달성하는 팀에게는 많은 특전과 찬사가 뒤따른다고 합니다.



### 여기서 잠깐

트레블이란? 대륙별 축구협회 내에 국가별로 존재하는 프로축구 리그에서 한 클럽팀이 자국 정규리그, 자국 FA(축구협회)컵, 대륙간 클럽대항전이 3개 대회를 한 시즌에 모두 석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English talk talk!!

## 6월의 영어속담

### You can't make an omelet without breaking eggs.

"You can't make an omelet without breaking eggs" means that in order to gain something, something else must be sacrificed or given up.

계란을 깨지 않고는 오믈렛을 만들 수 없다.

"You can't make an omelet without breaking eggs"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희생하거나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A: "I really want to move closer to my work to save on commuting time, but I love my current apartment. It suits me so well."

B: "Well, if you want to save on time, you'll have to give it up. As they say, you can't make an omelet without breaking eggs."

A: "출퇴근 시간을 줄이려고 직장 근처로 이사 가고 싶지만 지금 아파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 나한테 잘 맞거든."

B: "시간을 절약하려면 아파트는 포기해야지. 옛말에도 계란을 깨지 않고 오믈렛을 만들 수는 없다고 하잖아."

### 영자신문읽기 <AP뉴스 중>

• Many graduates have worked four long years to get a diploma in their hands.  
(많은 졸업생들은 졸업장을 손에 넣기 위해 길고 긴 4년을 공부합니다.)

• But one graduate in particular at West Virginia University has worked much longer  
(그러나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교의 한 졸업생은 특히 훨씬 더 오래 공부했습니다.)

• Ninety-four-year-old Anthony Brutto will be the university's oldest graduate in school history as he receives his Regents Bachelor of Arts Degree.  
(94세의 안토니 브루토씨는 RBA 학위를 취득하며 이 대학 역사상 가장 나이가 많은 졸업생이 될 것입니다.)

• His longtime love of woodworking, now being recognized.  
(그의 오래된 목공예에 대한 사랑이, 이제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 Brutto entered the university back in 1939, but his degree was put on hold when he was drafted into World War Two in 1942.  
(브루토씨는 1939년에 입학했지만, 1942년 제2차 세계대전에 징병될 때 그의 학위는 연기되었습니다.)

• While officially retired, Brutto will finally have something to show for his years of craftsmanship and devotion to an education.  
(공식적으로 은퇴하는 동시에, 브루토씨는 그의 손재주와 교육에 대한 헌신의 나날들을 보여주는 졸업장을 마침내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94세의 노인이 75년만에 대학교 졸업장을 손에 쥐게 되어 화제입니다. 이 노인은 1939년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세계 2차대전이 발발하면서 학업을 중간에 포기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길고 긴 시간을 지나, 드디어 다음 주 재학생 4,500명과 함께 졸업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 06

## 2015 JUNE

### 일정 및 임직원 경조사



• 섬유사업부 • 교육사업부 • 사업지원부

| 일 Sun                                                                              | 월 Mon                                                                                                    | 화 Tue         | 수 Wed                                                                                                   | 목 Thu         | 금 Fri                                                                              | 토 Sat                                                                              |
|------------------------------------------------------------------------------------|----------------------------------------------------------------------------------------------------------|---------------|---------------------------------------------------------------------------------------------------------|---------------|------------------------------------------------------------------------------------|------------------------------------------------------------------------------------|
|                                                                                    | 1<br>K/H(휴무)                                                                                             | 2             | 3                                                                                                       | 4             | 5<br>(미) 실업률                                                                       | 6<br>현충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택규 센터장(생)</li> <li>• 곽재상 부장(생)</li> <li>• 윤현미 사원(생)</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미영 과장(생)</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태영 대리(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제신 과장(생)</li> </ul>                      |
| 7<br>C/K(휴무)<br>I/D(휴무)                                                            | 8                                                                                                        | 9             | 10                                                                                                      | 11<br>금동위원회   | 12                                                                                 | 13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영애 차장(생)</li> <li>• 함지훈 대리(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다혜 대리(생)</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희찬 부장(생)</li> <li>• 박두일 대리(생)</li> <li>• 박수리 대리(생)</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준 차장(생)</li> <li>• 홍성호 사원(생)</li> </ul> |                                                                                    |
| 14                                                                                 | 15                                                                                                       | 16<br>FOMC 회의 | 17                                                                                                      | 18<br>K/H(휴일) | 19                                                                                 | 20<br>C/K(휴일)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유리 과장(생)</li> <li>• 정중찬 사원(생)</li> </ul>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소라 사원(생)</li> </ul>                      |
| 28                                                                                 | 29                                                                                                       | 30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수연 사원(생)</li> </ul>                      |                                                                                                          |               |                                                                                                         |               |                                                                                    |                                                                                    |

# Quiz

스토쿠게임 | 난이도 ★★☆☆☆

앞으로 임직원에게 재미를 선사할 Quiz 코너에서는 스토쿠, 십자말퍼즐, 미로찾기, 다른그림찾기 등 다채로운 게임으로 찾아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스토쿠 게임의 기본 원칙

1. 가로줄 9칸에 1~9까지의 수가 한번씩만 들어감
2. 세로줄 9칸에 1~9까지의 수가 한번씩만 들어감
3. 작은 상자 3X3=9 칸에 1~9까지의 수가 한번씩만 들어감.

|   |   |   |   |   |   |   |   |   |
|---|---|---|---|---|---|---|---|---|
|   |   | 2 | 5 |   |   |   | 9 |   |
| 9 |   |   |   | 7 | 2 | 5 |   |   |
|   |   | 5 |   |   |   |   |   | 7 |
| 4 | 1 |   |   | 5 |   |   |   |   |
|   |   |   |   | 6 |   |   |   |   |
|   |   |   |   | 4 |   |   | 8 | 3 |
| 1 |   |   |   |   |   | 8 |   |   |
|   |   | 6 | 4 | 3 |   |   |   | 1 |
|   | 8 |   |   |   | 7 | 4 |   |   |

# 월스토리 64호 Quiz

## 브레인샤워 게임 정답입니다!

|   | A | B | C |
|---|---|---|---|
| 1 |   |   |   |
| 2 |   |   |   |
| 3 |   |   |   |

a. b. c. d. e. f. g. h.

### 정답: g

각각의 행에서 세 그림을 합한 결과 선이 홀수 번 겹치면 그 부분은 그대로 남고 짝수 번 겹치면 그 부분은 사라집니다. 공식을 적용하여 세 그림을 합한 결과는 1행 2행 모두 그림 입니다. 따라서 3행의 결과로 그림 이 나오려면 물음표 대신에 g 와 같은 그림이 들어가야 합니다.

## ham@willbes.com

퀴즈의 정답을 적어 **함지훈** 대리에게 보내주세요.  
응모하신 월비스 임직원분들 중 추첨을 통해  
복지포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월스토리 원고제공

- 임민수 상무 섬유사업1부
- 박종현 대리 지원2팀

### 월스토리 64호 퀴즈당첨자

- 곽민철 대리 M&C

많은 분께서  
응모해주셨고,  
당첨된 분들  
축하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Will<sup>No.65</sup>  
Story



월스토키가  
다양한  
원고를  
모집합니다!

## 월스토키 원고 모집!

월비스 임직원분들의 생활 속의 TIP 이라는 주제로 원고를 모집합니다.

- 분량 : 제한없음
- 포상 : 심사를 통해서 복지포인트 1만 point ~ 5만 point 지급예정
- 기타 : 월비스 임직원분들의 생활 속의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주제가 너무 어렵나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토캠핑을 위한 장비 구입요령 (지름신 피하기), 세차하기(왜 미끈해야하는 건지?), 피부관리(꿀피부는 나의 것), 오피스활용(엑셀 종결자), 헬스요령(Show Your Six-pack), 고기 굽는 요령(인간 석쇠 되기) 등 다양하고 편안한 주제로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월비스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리겠습니다.

주제는 자유롭게, 사보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은  
매월 3째주 **금요일**까지 **함지훈**대리에게 보내주세요.

[ham@willbes.com](mailto:ham@willbes.com)